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4호 【루게 제23421호】 주체100 (2011)년 4월 14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리 는 감사전문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제일동포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드립니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99돐을 맞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가운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1억 6 520만명의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무한한 감동속에서 받아안았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사탕의 생명을 부여하신 1957년 4월 8일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를 넘은 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이번까지 157차례 걸쳐 일본돈으로 모두 467억 5 945만 390명의 거액에 달합니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초강도강행군걸음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분위하인 속에서 그 언제나 제일동포들을 잊지 않고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본을 휩쓴 대규모진과 헤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일동포들에게 거액의 위문금을 보내주시어 재생의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그토록 귀중한 돈을 또다시 보내주시었으니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하해같은 은정이 북받쳐오르는 격정과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니다.

정령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2012년으로 함께 가자고 제일조선인민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는 대를로를 펼쳐주시어 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닦아주시어 이룩하시어 제정의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시어 장군님은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인자하신 어버이이십니다.

제일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이 세상 가장 숭고한 민족애와 동포애를 지니시고 총련과 제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친어버이사랑과 배려를 끊임없이 돌려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없는 기쁨과 커다란 감격속에서 거두되는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은 우리들의 가슴가슴은 우리 모두의 운명이시고 미래

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장군님께 해와 달이 다하도록 끝까지 총적할 불같은 결의로 차념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주체위업의 새시대와 제일조선인민운동의 역사적구대에 맞게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모든 사업분야에서 공세를 벌려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전진전투를 탄탄히 구축하여 총련사업을 상승계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주체의 신념과 애국애족의 전통을 깊이 심어주어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에 기초한 총련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90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총련의 각급 조직들이 새로운 전성기에 맞는 면모를 갖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를 민족교육을 강화하는 해로 정하여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중등교육실시 65년, 조선대학과정 55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민족교육을 고수발전시키는 사업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입심단결의 힘과 난관들과의 정진력으로 일본당국과 우익분자들의 민족교육발달행동을 물리치고 모든 조직과 일군들, 새 세대를 비롯한 동포열성자들의 총동원으로 학생대렬을 결정적으로 늘리고 민족교육원력을 옹호확대하며 학교운영의 자립적태도를 틈튼히 마련해나감으로써 민족교육사업에서 부리 획기적전환을 이룩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새시대의 요구와 동포학부모들의 지향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무한히 충실한 유능한 민족인재, 참다운 애국자로 더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더이후 귀중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견결히 옹위하며 조국의 통일번영과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위업에 영예롭게 이바지해나가겠습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다한 없는 홍보의 한마음을 담아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제일동포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육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제일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0 (2011)년 4월 12일 일본 도쿄

##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각 하께

존경하는 각하  
인류공동의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인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국제적인 준비사업을 벌이고있는 우리들은 평양에서 앞으로의 총적인 활동과업과 방향이 규제된 중대한 결정을 채택한 기쁨과 자부심을 안고 각하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세인이 공인하는바와 같이 김일성주석은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 뛰어난 군사전략가,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대성인이십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그이를 위인중의 위인으로 열렬히 칭송하고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준비위원회들이 조직되며 이어 지난해 10월 단마르크 폐쇄하에서 국제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대체로운 기념행사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증사로 됩니다.

특히 이번엔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준비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는 세계적판도에서 기념활동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2012년 태양절을 인류사적대경사로 기념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계기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기념하려는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다시금 보여주시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협의회에서 채택된 결정서내용을 훌륭히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정해나감으로써 인류사적위업을 개척하시었으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것을 바치신 김일성주석의 위인상을 깊이 전하는데 적극 기여할것입니다.

각하  
우리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이 존경하는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는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일성주석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그의 탄생 100돐을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맞이하려는 조선 인민의 지향과 헌신적노력은 만민의 감탄을 자아내고있습니다.

우리는 각하께서 계시어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게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기념 국제준비위원회는 김일성주석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청중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세계적판도에서 더욱 성대히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자기의 사랑과 임무를 다할것입니다.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고귀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준비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 참가자일동**  
주체100 (2011)년 4월 13일 평양

2012년 태양절을 인류사적대경사로 기념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계기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기념하려는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다시금 보여주시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협의회에서 채택된 결정서내용을 훌륭히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정해나감으로써 인류사적위업을 개척하시었으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것을 바치신 김일성주석의 위인상을 깊이 전하는데 적극 기여할것입니다.

각하  
우리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이 존경하는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는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일성주석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그의 탄생 100돐을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맞이하려는 조선 인민의 지향과 헌신적노력은 만민의 감탄을 자아내고있습니다.

우리는 각하께서 계시어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게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기념 국제준비위원회는 김일성주석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청중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세계적판도에서 더욱 성대히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자기의 사랑과 임무를 다할것입니다.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고귀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 존경하는 김정일총비서각 하께

만물이 소생하는 환희의 계절 4월, 세계 여러 나라 주체사상신봉자들은 평양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 13차 확대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기쁨을 안고 김정일총비서각하께 이 편지를 올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 주체사상신봉자들은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 태양절을 영웅적인 조선인민과 함께 뜻깊게 맞이하게 됩니다.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새시대는 혁명의 수령에 의하여 열립니다.

자주시대 혁명의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으로써 진보적인류는 비로소 사람중심의 사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인류사상발전에서 역사적전환으로 되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치시었으며 조선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시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김정일총비서각하의 사상과 명도는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명도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전도는 양양하게 펼쳐졌습니다.

김정일총비서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진일적인 체계로 정립하시었습니다.

김정일총비서각하에 의하여 주체사상은 세계의 보편적사상으로 모든 나라들에 급속히 전파되고있습니다.

김정일총비서각하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성, 진리성에 의하여 반드시 총극적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혀주시었습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힘있게 전진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습은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은 반드시 열리게 될것입니다.

김정일총비서각하께서는 선군정치로 적들의 압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시었으며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시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주체사상신봉자들인 우리들은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주체사상연구포럼활동에서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지난 기간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세계 인민들이 주체사상의 가치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주체사상연구포럼활동에 헌신하여왔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에서 주체사상신봉자들은 대중과 함께 일하고 배우면서 주체사상연구포럼활동을 벌이고있습니다.

오늘 세계 각 대륙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찬가를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일총비서각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날로 통일번영하는 주체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2012년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체사상국제대회를 성대히 진행하려는것은 우리들 여러 나라 주체사상신봉자들의 한결같은 열망입니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김정일총비서각하께서 건강하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 13차 확대회의 참가자일동**  
2011년 4월 13일 평양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팔레스티나 민족당국 수반, 팔레스티아 선국 말라이동일당 총비서, 주조 외교단, 국제김일성기금 리사장이 꽃바구니와 선물, 축하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마호무드 아바스 팔레스티나 민족당국 수반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13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산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별전전대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다독 스리 명구 아드난 명구 만소프트 말레이시아 선국말라이 통일당 총비서가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어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다도 하지 마쉴린 빈 아브를 라흐만 당회고리사회 선원이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인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13일 외교단장인 팔레티쉬히니 로씨야연방 특별전전대

## 절세위인에 대한 हम오의 마음담아 펼쳐진 꽃바다



절세위인을 우리러따르는 천만민민의 열화같은 हम오의 마음 졸들이 흐르는 제 13차 김일성화축전장

【평양 4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하며 제 13차 김일성화축전이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축전장인 김일성화축전장 전시관에는 《제 13차 김일성화축전》, 《태양절 기념》이라는 글밭과 축전대사가 나오어있고 공화국기와 축전기밭들이 게양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는 축전장은 2만2천평에 달하는 태양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루고있다.

축전장에는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와 인민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도, 청소년학생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날들러 피어난

김일성화들이 전시되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해외동포를 그리고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대표들, 국제기금대표들, 외국의 친선 및 반대성단체들, 인사들, 불멸의 꽃보급후원회 회원들, 화교들의 지성이 어린 불멸의 꽃들이 축전장에 전시되었다.

축전 개막식이 13일에 진행되었다.

화국 특별전전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개막식에 초대되었다.

개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안동춘문화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지난 10여년간 성황리에 진행된 불멸의 꽃축전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류의 마음속에 분쇄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हम오심을 더욱 깊이 새겨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고 말했다.

집회장전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작품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집회장에 전시되어있었다.

집회에는 소련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화조 로씨야협회, 로씨야대외친선 및 협조발전위원회, 과학원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일군들이 집회에 초대되었다.

집회에서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1비서 모코도보이의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제 13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게 된것은 커다란 영광이고 행복이며 이것은 인도네시아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고 말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 수카르노대통령이 새로 유출된 꽃을 선물로 드린 때로부터 김일성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와 조선시대의 영원한 친선관계의 상징으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가》 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모스크바에서 7일 기념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장전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작품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집회장에 전시되어있었다.

집회에는 소련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화조 로씨야협회, 로씨야대외친선 및 협조발전위원회, 과학원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일군들이 집회에 초대되었다.

집회에서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1비서 모코도보이의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제 13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게 된것은 커다란 영광이고 행복이며 이것은 인도네시아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고 말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 수카르노대통령이 새로 유출된 꽃을 선물로 드린 때로부터 김일성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와 조선시대의 영원한 친선관계의 상징으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가》 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기쁜집회 로씨야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모스크바에서 7일 기념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장전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작품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집회장에 전시되어있었다.

집회에는 소련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화조 로씨야협회, 로씨야대외친선 및 협조발전위원회, 과학원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일군들이 집회에 초대되었다.

집회에서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1비서 모코도보이의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제 13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게 된것은 커다란 영광이고 행복이며 이것은 인도네시아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고 말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 수카르노대통령이 새로 유출된 꽃을 선물로 드린 때로부터 김일성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와 조선시대의 영원한 친선관계의 상징으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가》 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모스크바에서 7일 기념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장전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작품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집회장에 전시되어있었다.

집회에는 소련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화조 로씨야협회, 로씨야대외친선 및 협조발전위원회, 과학원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일군들이 집회에 초대되었다.

집회에서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1비서 모코도보이의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제 13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게 된것은 커다란 영광이고 행복이며 이것은 인도네시아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고 말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 수카르노대통령이 새로 유출된 꽃을 선물로 드린 때로부터 김일성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와 조선시대의 영원한 친선관계의 상징으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가》 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었으며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으로 조선로동당과 인민을 혁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고 칭송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선군정치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는 걸출한 령도자로 칭송하면서 김일성주석께서 세우시고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주의자들의 그 어떤 발악적책동에 도 끄떡없는 사회주의강국이 라고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신 축하연설을 들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그의 탄생 100돐을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맞이하려는 조선 인민의 지향과 헌신적노력은 만민의 감탄을 자아내고있습니다.

우리는 각하께서 계시어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게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기념 국제준비위원회는 김일성주석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청중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세계적판도에서 더욱 성대히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자기의 사랑과 임무를 다할것입니다.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고귀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준비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 참가자일동**  
주체100 (2011)년 4월 13일 평양

### 기쁜날엔 여러 나라에서 발행

부모님들의 혁명적영향을 받으며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자질과 품목을 갖추시었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한없이 고귀한것이다.

그이의 위대한 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켜나가고있다.

김일성각하께 영광을 드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는 불멸전에 《전민족대결의 기치》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불멸전은 글에서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대결 사상을 내놓으시고 펼쳐지

구현해오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민족대결의 가치에는 힘있게 전진하여온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은 자주와 단결의 리념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김일성주석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주석의 민족대결위업은 김정일동지에게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김정일 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의 민족대결사상을 반드시이고 사랑과 리념,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섭하고 단합시켜나간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 꽃피는 내 나라,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만경대로 깔았어 굽이쳐 흐르는 4월의 이 봄날,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에 더욱 숭엄히 어울린다.

민족수난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시기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에서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 오르시어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시고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훈리는 인류역사에 우리 수령처럼 위대한 사상과 영도력, 인덕을 지니시고 조국과 인민, 인류와 역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인민의 수령이 또 언제 있었인가.

꽃길은 태양절을 맞으며 아버지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정이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반위헌을 죄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에 바치시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쌓으신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오늘날 우리 인민의 마음 속에 인민의 아버지가, 인민의 수령으로 영생하고계십니다.》



아버 이수령님의 태양의 미소 빛나는 내 조국은 끝없이 흥성번영할 것이다 본사기자 립학락 찍음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인민위헌을 죄우명으로 삼으신 우리 수령님의 전생애를 판통하는 지론이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대에 벌써 자주시대의 요구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통찰하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고 주체의 실천한 진리를 밝히신 아버지수령님.

인민대중을 착취와 지배의 대상, 계몽대상으로만 보아오던 지난 시기의 온갖 그릇된 사고방식에 종지부를 찍고 인민대중이야말로 모든 것의 생명이며 역사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라는 것을 밝히신 아버지수령님께서께서는 장강 수십섬상에 달하는 혁명영토의 나날을 력사에

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인민적영토 사로 수놓아오시었다.

해방후 그처럼 어려운 과제로 나섰던 토지개혁을 정확히 실시하자면 땅의 주인인 농민들에게 의거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농민들과 마주 부를 찍고 인민대중이야말로 모든 것의 생명이며 역사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라는 것을 밝히신 아버지수령님께서께서는 장강 수십섬상에 달하는 혁명영토의 나날을 력사에

세 조국건설의 그 바쁘신 속에서 농민들속에 들어가 현실을 료해하시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려일으키신 아버지수령님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을 두고 농촌을 지배하여온 봉건적착취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토지혁명파업을 그처럼 짧은 시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전후 안락의 일우들이 인민생활이

어쩔수 없이 우리 혁명에 도전해설 때에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속에 들어가시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라의 중대사도 함께 논의하시며 천만의 심장을 울려일으켜 이 땅위에 혁명적대교조의 위대한 새 력사를 열어나가시었다.

인민들속에는 철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문학도 있으며 모든것이 다 있다고,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과제가 제기되어도 인민대중의 무

궁무진한 창조적열의와 지혜를 옮겨 실 때에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속에 들어가시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라의 중대사도 함께 논의하시며 천만의 심장을 울려일으켜 이 땅위에 혁명적대교조의 위대한 새 력사를 열어나가시었다.

인민들속에는 철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문학도 있으며 모든것이 다 있다고,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과제가 제기되어도 인민대중의 무

사실을 비롯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전생애는 사랑의 이야기인 이 땅위에 얼마나 뜨겁게 새겨졌는가.

어느날인가 일요일이 된 날 일군을 찾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오 어디에나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단위를 돌아보라고 하시었다. 하지만 그 일군은 섣불리 대답을 할수 없었다.

머칠테 밤늦도록 사역하시는

아버 이수령님께서 잠시나마 피로를 푸시려면 하는 생각이 앞섰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일군은 그에게 오늘은 일요일인데 오전한것만이라도 쉬시고 오후에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동무도 이제는 나와 함께 오때동일 일해오는데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른다 하고 하시며 내게 언제 일요일이라고 하여 편히 쉬어본적이 있는가, 여는때는 바빠 현지에 자주 나가지 못해도 일요일에 가까운 곳이라도 나가 현실로 로해하고 인민들과 만나보고싶다, 나에게 이 이상 더 만족할 일일은 없다, 이것이 나의 휴식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이날 아침 평양을 떠나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온 하루를 청산리와 옥도리 그리고 온천군의 여러 단위를 돌아보시고 밤이 펴 깊어오자 돌아오시었다.

인민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다고, 인민들을 만나보아야 마음도 즐거워지고 밤맛도 더 단다고 하시며 우리 수령님 인민들을 찾아 쉬임없이 이어가신 사랑의 그 길 위에 사회주의락원이 일떠서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었다.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이 땅위에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우리 수령님의 인민적영토는 백두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어 선군으로 존엄높은 조국땅에 더욱 즐거우게 호르고있다.

우리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단위를 돌아보시던 길이 이어가시던 아버지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조국 땅 이르는 곳마다에 전생애를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들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백두 산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지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영토에 의하여 오늘 이 땅위에 선군조선의 새로운 전생애가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혁명의 전투에 높이 모시고 위대한 당을 따라 놓으신 신심드높이 광활한 미래를 향하여 무궁하게 나아가는 김일성민족의 무궁번영과 더불어 위대한 태양의 력사는 영원히 흐를 것이다.

본사기자 김오진

## 깊이 새겨주신 삶의 좌우명

뜻깊은 4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는 언제나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참다운 행복으로 살며 일하도록 이끌어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뜨겁게 안겨온다.

언제인가 아버지수령님께서 경제 부문 책임일군회의회를 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이 자기의 본분을 자각하고 경제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이익하게 일해나간다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수 있다고 하시면서 경제사업이 잘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언제나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믿지 않고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것이 바로 혁명하는 사람들의 좌우명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은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일이며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행복이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일군들 모두가 이반위헌의

업이 잘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언제나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믿지 않고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것이 바로 혁명하는 사람들의 좌우명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은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일이며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행복이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일군들 모두가 이반위헌의

위대한 진리를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의 행복이 되어 한생을 빛나게 살며 투쟁하기를 바라시는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을 새 찬 격정으로 뚫어내지 않게 하였다.

승업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일군들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속에 들어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 주체사상의 요구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라! 아버지수령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우리 일군들이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지침이었다.

본사기자 정순화

## 간곡한 당부, 빛나는 현실

혁명적대교조의 열풍이 세계를 휘몰아치는 내 나라, 내 조국강산에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더욱 빛난다.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하시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을뿐 아니라 민족만대의 찬란한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를 떠나 아버지수령님께서 그토록 념원하신 사회주의강성대국에로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대한 우리 수령님의 유훈이야말로 강성대국승리의 표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영도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지금도 조용히 귀 기울이면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다음날인 주제80(1991)년 12월 12일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선군조선의 미래를 확신 하시며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절대복종

하며 최고사령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앞으로 전군에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며 최고사령관에게 충성을 다할데 대하여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절절한 말씀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그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수령님께서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받드는 여기에 조선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얼마나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주제81(1992)년 4월에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속하고 완성하려면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의 2세대, 3세대, 4세대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김정일동지에게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동무들이 지금까지 나를 받들어 혁명의 길에 단정히 걸어온것처럼 앞으로 일 전단심 김정일동지를 충직하게 잘 받들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뛰어나가라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씀하시었다.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인민 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그의 영도를 잘 받들어나

가야 한다고, 김정일동지의 영도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정부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의 오늘날의 긍지와 행복한 생활이 영원하기를 바라시며, 집집마다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넘치고 온 나라에 만물이 쏟아질 부강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념원하시어 생전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더 잘 받들어모실데 대해 간곡히 말씀하신것 아니라.

아버 이수령님의 이 간곡한 당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데 힘차게 뛰어 나실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아버 이수령님의 유훈은 추호도 어긋할수 없는 당의 강령과 같다.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정신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혁명승리의 근원담보이며 혁명하는 사람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부강번영하는 불패의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내 조국 땅 그 어디에서나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위성제작 및 발사, 핵보유국의 위력과 함께 대교조시대를 상징하는 주체화, 주체비둘기, 우리 식 CNC화기, 기적, 선군시대의 희한한 선경들...

강성대국승리의 날을 더욱 확신하게 하는 이 모든 경이적인 성과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리상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영토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 영토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때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유훈이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사업을 받들어 력사에 유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길에서 천만군민이 심장깊이 새긴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흐른대도 아버지수령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를것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들이 온갖 모퉁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뛰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금 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성원들을 만났다



【평양 4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3일 만수 대의사당에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인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과 리사들인 조너 혼 국제김일성기공 리사장, 알베르 드 아니야 구뎨메스 메히꼬로동당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자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장봉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 관계 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벨라루스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르 그리고리예비치 루카셴꼬각하 나는 귀국의 민스크지철도에서 일어난 폭발테러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불행한 소식을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당신과 귀국정부가 이번 사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민스크 벨라루스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르 그리고리예비치 루카셴꼬각하 나는 귀국의 민스크지철도에서 일어난 폭발테러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불행한 소식을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당신과 귀국정부가 이번 사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0 (2011)년 4월 12일 평양

## 변함없이 백두산시절처럼

나의 집에는 회세의 위인들이 모시고 짙은 영광의 기념사건들이 벽을 짝 채우고있다.

지금도 나는 그 뜻깊은 기념사건들을 보고 또 보면서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성장해온 나날들을 긍지롭게 추억하곤 한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은 그 어느 위인교조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민지사입니다.》

돌이켜보면 항일의 그 나날 어린 나이에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것은 나에게 있어서 행운중의 행운이었다. 그때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할 소중함을 안고 숙영지로 찾아온 소년들가운데는 나도 있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겠다는 동무들의 한결같은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동무들은 모두다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리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년중대의 편성을 엄숙히 선포하시었다. 소년중대, 참으로 그것은 누구보다 조국의 미래를 열릴터 사랑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졸업한 싸움과 행군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소년중대원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으며 평정한 투사들을 키우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셨었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소년중대 대원들에게 무기를 수여하시면서 열렬히 축하해주시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숙영지의 우등분가에서 우리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조국을 심어 주시였을뿐 아니라 나를 비롯한 소년중대원들의 결의도 들어주시며 변함없는 총대선념과 의지를 역력히 새겨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한시도 잊을수 없다.

그렇듯 마사롭고 자애로운 아버지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짧은 시간에 조선혁명의 리론과 전략기술을 체득하고 총을 다루고 쓰는 방법, 행군과 숙영하는 방법, 적들과 싸우는 방법, 군중요양방법 등을 배울수 있었으며 어떠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으로 자라나 조국해방위업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아버 이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나에게 거듭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으며 백두산시절처럼 총과 함께 혁명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편대가 미제를 격멸하는 전투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울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전략과 전법, 무한한 동지적사랑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과분하게도 그 모든것을 우리들의 공로로 높이 치켜주시었다.

아버 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려온 나의 한생을 세월에 호를수록 새 세대들앞에 내세워주고 더욱 빛내여 주신분은 우리 수령님그대로서인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항일혁명투사들을 혁명의 1세라고 하시며 주시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다 안겨주시었다.

장정 숭고한 동지적리의를 지니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을 혼연일체의 아름다운 화원으로 가꾸어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은정이야말로 나만이 아닌 천만군민 모두가 아버지수령님의 전사, 제자로 삶을 끝없이 빛내이게 하는 자양분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태양절을 앞둔 이 시각 나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언제나 백두산시절처럼 투철한 수령님사용위정신,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위대한 선군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충정으로 받들며 땀과 노력을 더 끈기 다지겠다.

항일혁명투사 김철만

# 내 조국은 영원히 김일성조선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 부강조국의 만년재부를 마련해주시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주체공업의 발전력과 더불어 빛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일찍이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독창적인 구호를 내놓으시고 혁명적 야장간의 가달은 불우소리만이 처량하게 들려오던 이 땅위에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립경제의 만년초석을 쌓아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어떻게 다 전할수 있겠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마련해주신 자립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있기에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위용 떨쳐서 사회주의 건설대국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것이다.

3년간의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로 변했다. 그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현안과 미래를 내다보시고 자립적인 기계공업의 튼튼한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리셨다.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에 발전시키는데 대한 독창적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튼튼한 기계공업기초를 꾸리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셨다.

이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에는 그 어떤 과태도도 끄떡없는 강위력한 국력을 담보해주는 자립적인

기계공업을 일떠세우시려는 수령님의 철의 의지와 신념이 그대로 이어져있다.

이 구조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따라 허리를 굽어 버리고 회천과 구성, 덕천과 대안, 통성을 비롯하여 나라의 곳곳에 기계공업기초를 일떠세우기 위한 기계공업의 터전을 튼튼히 다지셨다.

이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에는 그 어떤 과태도도 끄떡없는 강위력한 국력을 담보해주는 자립적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도 금속공업과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디다.》

해방전 열이나 다름없던 상태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한 중공업의 발전은 혁명발전의

성공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현안과 미래를 내다보시고 자립적인 기계공업의 튼튼한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리셨다.

이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에는 그 어떤 과태도도 끄떡없는 강위력한 국력을 담보해주는 자립적인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서 우리 인민은 자립적인 기계공업의 튼튼한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리셨다.

이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에는 그 어떤 과태도도 끄떡없는 강위력한 국력을 담보해주는 자립적인

## 선경을 노래하는 사회주의 농촌

### 복받은 대지의 새 모습

우리 조국의 그 어느 농촌에 가보아도 위대한 농촌해방의 빛바람이 사회주의 선경을 노래하는 환한 모습이 펼쳐져있다.

규격화된 모진 제농작물재배의 동음이 높고 울려 퍼져서 하는 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승고한 령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대규모 기계화조작으로 훌륭히 정리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투지정리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 주신 그날로부터 정예동맹에 수십만명의 토지대 규모 기계화조작으로 진행된 교각의 혁명적 선찰자들의 애국적후원으로 온군화근 근면적한 한 밭이 생겨나는 일대 사변이 일어났다.

형성으로 농업생산에 필요한 판공용수가 넉넉히 마련되어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 평안북도, 황해북도의 수십개 시, 군, 구역에서 알곡생산의 수확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개천-대소천, 백마-월산, 미루벌들의 백두대간, 각지의 혁명적 선찰자들에서 가파르히 말을 모르고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있다.

수많은 저수지와 물결은 비물을 잡아두는 저류지 역할을 하고 있어 큰물 피해를 막아주는 것은 물론 간석지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짓도록 해주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건설된 3대자연호를 비롯하여 각지의 농업생산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농촌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가시는 것에 대한 장군님의 신구형 령도의 령에서 이 땅에 토지정리의 새 색채가 펼쳐졌다. 이렇거나 협동농은 자를 대고 그 온전한 눈동리를 경계선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농촌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가시는 것에 대한 장군님의 신구형 령도의 령에서 이 땅에 토지정리의 새 색채가 펼쳐졌다. 이렇거나 협동농은 자를 대고 그 온전한 눈동리를 경계선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농촌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가시는 것에 대한 장군님의 신구형 령도의 령에서 이 땅에 토지정리의 새 색채가 펼쳐졌다. 이렇거나 협동농은 자를 대고 그 온전한 눈동리를 경계선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농촌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가시는 것에 대한 장군님의 신구형 령도의 령에서 이 땅에 토지정리의 새 색채가 펼쳐졌다. 이렇거나 협동농은 자를 대고 그 온전한 눈동리를 경계선으로 하여

### 생명수 흘러 넘치는 불길

일찍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에서 물은 생명수라고 하시며 수리화실현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 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다.

어버이수령님의 령권을 현실로 활짝 꽃피워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대규모 기계화조작으로 훌륭히 정리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투지정리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 주신 그날로부터 정예동맹에 수십만명의 토지대 규모 기계화조작으로 진행된 교각의 혁명적 선찰자들의 애국적후원으로 온군화근 근면적한 한 밭이 생겨나는 일대 사변이 일어났다.

형성으로 농업생산에 필요한 판공용수가 넉넉히 마련되어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 평안북도, 황해북도의 수십개 시, 군, 구역에서 알곡생산의 수확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개천-대소천, 백마-월산, 미루벌들의 백두대간, 각지의 혁명적 선찰자들에서 가파르히 말을 모르고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있다.

수많은 저수지와 물결은 비물을 잡아두는 저류지 역할을 하고 있어 큰물 피해를 막아주는 것은 물론 간석지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짓도록 해주었다.

### 탄상 꽃과 열매

어버이수령님의 승고한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이 땅 위에 가을이 만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고인다.

얼마전 내가 인민생활개조조로 들끓는 함흥모방직공장을 찾았을 때였다. 이 공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비발론 생산의 우렁찬 동음은 나의 가슴속에서 세찬 격정의 파도를 일으켰다.

이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에는 그 어떤 과태도도 끄떡없는 강위력한 국력을 담보해주는 자립적인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서 우리 인민은 자립적인 기계공업의 튼튼한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리셨다.

이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에는 그 어떤 과태도도 끄떡없는 강위력한 국력을 담보해주는 자립적인

## 위대한 령도, 자랑찬 전변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촌경리부에서 새로 변혁을 이룩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 농촌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후손들에게 길이 빛내이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정녕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기계공업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이겨내고 이 땅 위에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력사적 전환기를 열어나올 수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기계공업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이겨내고 이 땅 위에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력사적 전환기를 열어나올 수 있었다.

### 반사기자 전성 삼

보람질은 4월의 강산에 태양의 빛바람이 따사로이 비추는 다. 아름다운 환희의 계절을 맞이한 이 시각은 나라 천만민의 마음과 마음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투리는 그리움을 넘쳐 태양의 성지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끝없이 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의 유흔의 뜻이 꽃피는 우리 조국의 부강변영속에서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말할 수 있디다.》

## 한길

들어선 어버이수령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직통의 탄부도 없다고 반겨 맞아주시는 것만 같아 용남동무는 추우지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해방전 랭영, 랑군으로 불리우던 랑부들의 암흑같은 인생길에 참된 삶의 광명을 주시고 랑부들을 나라의 맡아들로서 키워 주신 어버이수령님, 해방적 후 선량발달의 첫 걸음을 열어 주신 때로부터 한평생 밀고 힘찬 랑진들을 찾아 주신 수령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촌경리부에서 새로 변혁을 이룩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 농촌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후손들에게 길이 빛내이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정녕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기계공업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이겨내고 이 땅 위에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력사적 전환기를 열어나올 수 있었다.

### 반사기자 전성 삼

보람질은 4월의 강산에 태양의 빛바람이 따사로이 비추는 다. 아름다운 환희의 계절을 맞이한 이 시각은 나라 천만민의 마음과 마음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투리는 그리움을 넘쳐 태양의 성지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끝없이 달리고있다.

어제 감사봉사, 두벌농사만이라. 당의 종자혁명방향이 농업생산전면에 관통함으로써 알곡생산뿐만 아니라 파수, 축산, 양어발달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있다.

선군시대 우리 농업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모든 성과들은 사회주의 농촌건설분야에 쌓아온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독창적인 농촌혁명방향을 제시하시고 농촌건설을 전두에서 지휘하시는 것에 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구이다.

이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에는 그 어떤 과태도도 끄떡없는 강위력한 국력을 담보해주는 자립적인

### 반사기자 김 향 램

어제 감사봉사, 두벌농사만이라. 당의 종자혁명방향이 농업생산전면에 관통함으로써 알곡생산뿐만 아니라 파수, 축산, 양어발달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있다.



반사기자 활 연 역

##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품도

필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철통배로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날이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이 땅에서 투쟁대오의 절대적인 지지가 펼쳐지게 된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생애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주체사상의 대승리를 단계로 이루어져 갔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실현의 생명선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따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었음은 나날 천만민민의 사상정신세계는 승화한 높이에서 이르게 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령도자와 뜻도 운명도 함께 하면서 수령님의 유흔 관철을 위하여 역세로 투쟁해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 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이라는 고귀한 칭호는 곧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존엄과 영예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적 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할지며 김일성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 오려는 것은 천만민민의 철석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님사우위의 투사들로 역세로 자라나게 되었다.

전군, 전민을 수령님사우위의 건장한 투사로 키우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대를 이어 계속해나감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합니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 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온 사회를 일색화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은 위대한 령도자의 높이 모신 때 빛나게 실현될 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 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이라는 고귀한 칭호는 곧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존엄과 영예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적 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할지며 김일성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 오려는 것은 천만민민의 철석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님사우위의 투사들로 역세로 자라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따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었음은 나날 천만민민의 사상정신세계는 승화한 높이에서 이르게 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령도자와 뜻도 운명도 함께 하면서 수령님의 유흔 관철을 위하여 역세로 투쟁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의 유흔의 뜻이 꽃피는 우리 조국의 부강변영속에서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말할 수 있디다.》

어제 감사봉사, 두벌농사만이라. 당의 종자혁명방향이 농업생산전면에 관통함으로써 알곡생산뿐만 아니라 파수, 축산, 양어발달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있다.

어제 감사봉사, 두벌농사만이라. 당의 종자혁명방향이 농업생산전면에 관통함으로써 알곡생산뿐만 아니라 파수, 축산, 양어발달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있다.

어제 감사봉사, 두벌농사만이라. 당의 종자혁명방향이 농업생산전면에 관통함으로써 알곡생산뿐만 아니라 파수, 축산, 양어발달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있다.



#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농업근로자들의

## 맹세모임 진행

## 녀맹원들의 기념공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9돐 기념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모임이 13일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직맹일군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모뎀참가자들은 꽃바구니와 꽃송이를 진정하고 사가 인사로 드려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명도를 받들고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맹세를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선창에 화답하며 엄숙히 다지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을 빛나게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것은 아버지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견결한 수령결사옹위투사, 우리당의 선군사상의 제일신봉자, 철저한 관철자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영업과 농업, 인민경제 4대 선봉부문을 비롯한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견결의 신념과 본때, 실천력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국군을 다그쳐나갈것을 결의하였다.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일터와 거리,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리며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혁명적방만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일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로동계급의 무쇠마치

로 날로 악랄해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서버리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정치를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갈것을 다짐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포격전에서 선군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힘차게 펼쳐갈 의지를 다지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명도따라 조국의 통일변명을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칠 불타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든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김정일장군님의 100년사를 강성대국의 자랑찬 승리로 빛내기 위한 전인민적 선군전선에 발맞추어 농업생산투쟁에 힘차게 펼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결사관철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지대적특성에 맞는 우량품종과 선진농기술을,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농장과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러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투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가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녀맹원들의 기념공연

녀맹원들의 기념공연

녀맹원들의 기념공연

녀맹원들의 기념공연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모임

##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 기념연회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11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로씨야의 무성 부상, 국가회의의 대의원들, 연방평의회 의원들, 전 소련국방상과 통일로씨야당, 정의의 로씨야당, 연방공산당, 자유민주당, 평화 및 통일당, 진리맹원들, 세비코공산당, 외무성, 국방성, 지역발전성, 내무성, 경제발전성, 비상사태성, 문화성, 모스크바시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협회 로씨야협회, 국제사신단체연맹 《신의 세계》 등 정당, 정부, 단체의 인사들이 초대되었다.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증정하였으며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시

어,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라는 주제로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김명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는 1912년 4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은 조선민족의 운명개척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가장 뜻깊은 의의를 가지시는 역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그는 10대의 여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한평생 조국과 인민의 행복, 인유자주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친신 위인중의 위인이시었다고 칭송하였다.

조선인민은 아버지수령님의 유훈대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 땅에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고 언급하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의지를 밝혔다.

알렉세이 보로달핀 로씨야의 무성 부상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마련된 로소친선협조관계는 오랜 역사적전통과 공고한 기초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두 나라 수뇌부들의 합의와 국가간조약에 기초하여 호상합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건창하시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성을 기원하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드미트리 아나톨리에비치 메드베제브레로프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로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힘을 들였다. 연회에서는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악대미야협주단의 공연이 있었다.

**중화전국총공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만경대교항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역침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 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마련하여주시었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과 우의탑 등을 참관하였다.

단장으로서 중화전국총공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

**주조 무관단 제13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

들어보았다.

참관객을 마치고 그들은 감상록에 글을 남겼다.

알렉세이 바르투스트 로씨야 연방대사관 무관들은 축전장은 김일성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끝없는 존중심을 보여주고있다고,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인민

## 태양절 기념행사

### 여러 나라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프랑스, 벨기에, 남아프리카에서 집회와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가 6일에 진행되었다.

사진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우리 인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소개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들은 프랑스혁명적공산주의자맹맹, 프랑스로소친선협회, 벨기에사회주의당, 공산주의자맹맹, 벨기에조선친선협회,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부랑 참가주위위원회,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0돐 기념 남아프리카 전국준비위원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프랑스로소친선협회 부위원장 김일성주석께서는 탄생한 태양절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전 세계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명절이라고 하면서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우리는 주석의 빛나

는 한생에 대하여 추억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로 인도하신데 대하여 강조하고 이 과정에 혁명적투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단합을 실현하신데 대하여, 우리 인민이 혁명의 첫 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은 력사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쌓으시어 세계 각 지대적으로 공인하는 건설적위업에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선전하는 활동을 보다 활발히 벌여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남아프리카공산당 유부랑 참가주위회 비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상에는 수령도 많고 명절도 많지만 인민을 위해 종신로속하며 고생도 많이 하고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친신분은 오직 김일성주석뿐이다.

우리는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존경하는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김정일각하의 불멸불류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은 지금 세계를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조선에서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김일성주석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보라》, 《주체사상》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벨기에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 의학대학 새 교사 준공**

교사하시였으며 전후에는 보다 현대적인 교사를 일떠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11월 몸소 대학을 찾으시고 나아가길 결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새 교사건설을 하 무뎠리 끝내기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신것을 비롯하여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게 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고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인정신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교사건설을 완공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 수도시민들을 위한 봉사준비 활발

### 평양 시에서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수도 민위위원회에서는 태양절을 맞으며 수도시민들에게 더 많은 생활수용과 식료품을 보장해 주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시인민위원회 상임관리국에서는 이 사업을 실속있게 하기 위하여 해당 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최고원칙으로 삼고있을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수도시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쳤다. 당의 인민적시책이 은이 나게 하기 위해 시장 위원회에서는 시안의 경공업공장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상품공공사업과 공영방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 외국선박선원들의 기념집회와 회고모임 진행

### 기념집회와 회고모임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기념집회와 회고모임이 13일 평안도와 함남항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집회장과 모임장소에 모셔져있었다.

집회와 모임에는 중국홍콩선박 《파이스트 글로리》호, 캄보디아국선박 《진순》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와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을 장시하시어 자수와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했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 한평생 인민의 자유와 행복, 나라의 통일변명을 위한 위업 실현에 모든것을 바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의 태양아시며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불멸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다.

그들은 위대한 주석의 유훈을 받들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투쟁은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와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렬적인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중국에서

### 중국에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중국 베이징에서 12일 파당회가 진행되었다.

파당회에는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베이징국제우호연락회 일군들, 함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들이 참가하였다.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하고 하는 친선대표단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우리 나라 영화 《주체사상》을 감상하였다.

리효화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 함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 류소화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김일성주석에 한평생 이인위업을 좌우명으로 삼고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온 세계가 공인하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영예를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모택동, 주은래 등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함께 중조친선을 마련하시고 그 강화발전케 탁월한 공헌을 하신것으로 하여 중국인민의 다함없는

충모를 받고계신다고 그들은 강조했다.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고 이끌어 오신 주체혁명위업은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조선인민이 올래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의도에 맞게 전통적인 중조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양 4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13일 제13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다함없는 경도의 정에 떠날수록 아름답게 보여주고있는 김일성화들을 깊은 감동속에

단장으로서 하는 중화전국총공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

**【평양 4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13일 제13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다함없는 경도의 정에 떠날수록 아름답게 보여주고있는 김일성화들을 깊은 감동속에

단장으로서 하는 중화전국총공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

**【평양 4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13일 제13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다함없는 경도의 정에 떠날수록 아름답게 보여주고있는 김일성화들을 깊은 감동속에

**【평양 4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13일 제13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다함없는 경도의 정에 떠날수록 아름답게 보여주고있는 김일성화들을 깊은 감동속에

**【평양 4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13일 제13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다함없는 경도의 정에 떠날수록 아름답게 보여주고있는 김일성화들을 깊은 감동속에

**【평양 4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13일 제13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다함없는 경도의 정에 떠날수록 아름답게 보여주고있는 김일성화들을 깊은 감동속에

**【평양 4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13일 제13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다함없는 경도의 정에 떠날수록 아름답게 보여주고있는 김일성화들을 깊은 감동속에

**【평양 4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13일 제13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다함없는 경도의 정에 떠날수록 아름답게 보여주고있는 김일성화들을 깊은 감동속에

# 태양찬가, 위인희모의 노래 높이 부르자

## 제 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공연 성황리에 진행

제 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제 2일 공연이 12일 평양시내 극장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밝히며 새해 첫날을 축하하고 세계화추진위업을 현명하게 이끄는 시대의 역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에 쓰신 시, 중앙기관 일꾼들, 축전조직위원회 성원들과 평양시내 예술인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그리고 주조 여러 나라의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 손님들,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 다함없는 경모심의 분출

우바기타 3명창단, 제2조선인예술단, 국제교원동맹연합회 예술단의 공연이 청년중앙회관에서 있었다.

국제교원동맹연합회 예술단의 남성독창가수는 나라의 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안고 노래 《수령님 뭇가이 모시고싶어》를 절절하게 불러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본성 2중창 《장군님 모신 영광 전하오》에서 제2조선인예술단들은 중국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공연한 그날을 영원히

영원한 수명으로 높이 모시고 이 땅위에 수령님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하시였으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성, 중앙기관 일꾼들, 축전조직위원회 성원들과 평양시내 예술인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그리고 주조 여러 나라의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 손님들,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가슴깊이 간직하고 싶려는 자기들의 심정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우바예술인들은 여러 나라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노래 《애국가 무효》를 통한 성향과 독특한 연주기법으로 형상화하였다.

윤이상음악당에서는 벨라루스 《클라리크 아바르가드》 가극중주단, 벨라루아 소피아가극극장 소속 《오르페이》 배우단 독창가일행이 공연하였다.

벨라루시예술인들은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를 비롯한 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관객들은 선율을 들으면서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탁월한 지략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절절히 수호해가시는 백두의 천총명장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벨라루아 소피아가극극장 소속 《오르페이》 배우단의 남성독창가수는 불후의 고전적극작 혁명가곡 《꽃피는 처녀》중에서 가요 《꽃보다 더 내 이름이 더욱 귀하니》를 서정적으로 인상 깊게 불렀다.

로씨야 모스크바교향악단, 제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이 평양극장에서 성황리에 있었다.

아름다운 의상을 하고 발레

동행양극극장에서는 중국 하문소백로민속무용단, 몽골국립교향악단행배우단, 핀란드 음악단, 로스카 《이즈브르 데 불자》 민속예술단이 공연하였다.

1993년 8월 중국예술단 성원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공연하는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을 지녔던 여성배우는 풍류미 넘치는 작품을 공연무대에 내놓았다.

여성수용부 《중이를 오르는

무용극 《백조의 호수》 중에서 《로씨야춤》에 출연한 로씨야 모스크바교향악단의 예술인들은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교향악과 현대무용작, 세련된 연기로 관람자들을 작품의 세계로 이끌었다.

제일조선인예술단은 높은 형상수준으로 작품들의 내용을 부각시킨 독무 《고려너무사》, 민속무용 《갈무늬》에 자기 인민의 정서와 감정을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오스트리아 민족관중주단, 프랑스 알베리크 마냐르명칭 실내악단, 도이칠란드 《크로이첸 콘서트》 협회 독주가일행, 로씨야 모스크바교향악단, 제일조선인예술단의 여성독창가수는 이면위풍을 좌우하며 위대하고 험한 길을 많이도 걸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은총에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마련되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조국과 고향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담은 남성독창 《핀란드의 노래》는 가수의 풍부한 성량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로스카 《이즈브르 데 불자》 민속예술단은 남성독창 《나의 사랑 울드강이여》, 민속무용 《갈무늬》에 자기 인민의 정서와 감정을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오스트리아 민족관중주단, 프랑스 알베리크 마냐르명칭 실내악단, 도이칠란드 《크로이첸 콘서트》 협회 독주가일행, 로씨야 모스크바교향악단, 제일조선인예술단의 여성독창가수는 이면위풍을 좌우하며 위대하고 험한 길을 많이도 걸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은총에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마련되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 고조시킨 공연

연출한 배우들은 우아하면서도 매력있는 춤동작들을 보여줌으로써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첫 공연에서 우리 나라 노래 《꽃잎을 내리 길》을 류창하게 불러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몽골민속무용단에서는 자기 조국의 풍경을 형상한 노래 《몽골의 초원》을 무대에 올렸다.

핀란드음악단의 바이올린독주가는 《고전음악편곡》을 곡상의 요구에 맞게 잘 연주

하였다.

조국과 고향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담은 남성독창 《핀란드의 노래》는 가수의 풍부한 성량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로스카 《이즈브르 데 불자》 민속예술단은 남성독창 《나의 사랑 울드강이여》, 민속무용 《갈무늬》에 자기 인민의 정서와 감정을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오스트리아 민족관중주단, 프랑스 알베리크 마냐르명칭 실내악단, 도이칠란드 《크로이첸 콘서트》 협회 독주가일행, 로씨야 모스크바교향악단, 제일조선인예술단의 여성독창가수는 이면위풍을 좌우하며 위대하고 험한 길을 많이도 걸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은총에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마련되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명작들로 풍만 한 무대

관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리던 잊을수 없는 나날들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그려보며 청춘도 생애도 바쳐서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숭고한 정 신세계와 불굴의 의지, 혁명

성공향약이 다재로운 곡목들을 공연무대에 올렸다.

국제공률수상자가 지휘한 관현악 《내 고향의 정든 집》은 공연시작부터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 명작들로 풍만 한 무대

관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리던 잊을수 없는 나날들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그려보며 청춘도 생애도 바쳐서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불굴의 의지, 혁명



제2조선인예술단의 합창 《백두산 하늘아래 우리 샅니다》



중국 길림성교향악단의 관현악 《내 고향의 정든 집》



프랑스 알베리크 마냐르명칭 실내악단의 현악 4중주



로씨야 모스크바교향악단 명배우단의 여성독창

# 제 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합동 및 단독공연 진행

제 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동행양극극장, 문화예술극장, 모란봉극장, 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에서는 13일 합동 및 단독공연이 있었다.

성, 중앙기관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과 주조 여러 나라의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 외국 손님들,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축전무대를 뜻있게 장식하려는 일본인들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은 다재로운 춤동작들을 무대에 올렸다.

중국길림성교향악단은 세련된 연주로 관현악의 깊은 정서적 감정을 나타내었다.

핀란드음악단의 바이올린독주가는 《고전음악편곡》을 곡상의 요구에 맞게 잘 연주

가슴깊이 간직하고 싶려는 자기들의 심정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우바예술인들은 여러 나라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노래 《애국가 무효》를 통한 성향과 독특한 연주기법으로 형상화하였다.

윤이상음악당에서는 벨라루스 《클라리크 아바르가드》 가극중주단, 벨라루아 소피아가극극장 소속 《오르페이》 배우단 독창가일행이 공연하였다.

벨라루시예술인들은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를 비롯한 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관객들은 선율을 들으면서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탁월한 지략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절절히 수호해가시는 백두의 천총명장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벨라루아 소피아가극극장 소속 《오르페이》 배우단의 남성독창가수는 불후의 고전적극작 혁명가곡 《꽃피는 처녀》중에서 가요 《꽃보다 더 내 이름이 더욱 귀하니》를 서정적으로 인상 깊게 불렀다.

로스카 《이즈브르 데 불자》 민속예술단은 남성독창 《나의 사랑 울드강이여》, 민속무용 《갈무늬》에 자기 인민의 정서와 감정을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오스트리아 민족관중주단, 프랑스 알베리크 마냐르명칭 실내악단, 도이칠란드 《크로이첸 콘서트》 협회 독주가일행, 로씨야 모스크바교향악단, 제일조선인예술단의 여성독창가수는 이면위풍을 좌우하며 위대하고 험한 길을 많이도 걸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은총에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마련되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연출한 배우들은 우아하면서도 매력있는 춤동작들을 보여줌으로써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첫 공연에서 우리 나라 노래 《꽃잎을 내리 길》을 류창하게 불러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몽골민속무용단에서는 자기 조국의 풍경을 형상한 노래 《몽골의 초원》을 무대에 올렸다.

핀란드음악단의 바이올린독주가는 《고전음악편곡》을 곡상의 요구에 맞게 잘 연주

하였다.

조국과 고향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담은 남성독창 《핀란드의 노래》는 가수의 풍부한 성량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로스카 《이즈브르 데 불자》 민속예술단은 남성독창 《나의 사랑 울드강이여》, 민속무용 《갈무늬》에 자기 인민의 정서와 감정을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오스트리아 민족관중주단, 프랑스 알베리크 마냐르명칭 실내악단, 도이칠란드 《크로이첸 콘서트》 협회 독주가일행, 로씨야 모스크바교향악단, 제일조선인예술단의 여성독창가수는 이면위풍을 좌우하며 위대하고 험한 길을 많이도 걸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은총에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마련되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 승리와 영광의 18년

영국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으로 높이 모심으로 조선에서는 주체적인 국방건설과 국가건설을 비롯한 혁명적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졌다.

지난 18년은 조선이 미제와 그 주조들에게 참패를 당한 슬픔과 영광의 나날이었다.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조선을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자주성을 옹호할 수 있게 하는 보금이다.

우리는 뜻있는 날을 맞이하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루어질것을 우리는 굳게 확신한다.

## 백두산화산공동연구를 위한 북남실무접촉 진행

백두산화산공동연구를 위한 12일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실무접촉의 목적이 백두산화산공동연구를 추진시키기 위한 실무적문제들을 협의하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공동연구를 위한 학술토론회와 현지답사의 시기와 장소, 규모도 협의, 내용 등과 관련된 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위한 합의를 맺어줄 것을 제안하였다.

남측은 백두산화산공동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그 무슨 《접근방식》이니, 《원칙》이니, 《단계별 계획》이니 하면서 진척여진 6개월, 분단체연구는 2년이 속력도 없는 저들의 그 무슨 《접근방식》이니, 《원칙》이니, 《단계별 계획》이니 하는 것을 장황하게 리얼한 《향해각서》라는것을 들고나와 고의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그러면서 백두산화산연구와 관련한 우리측 자료를 먼저 넘

게줄것만 계속 고집하였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자료제공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백두산화산공동연구를 무한정 지연시키면서 북남협력에 나서지 않으려는 성의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측은 남측의 부당한 태도를 강하게 문제시한 다음 백두산화산공동연구와 관련한 학술토론회와 현지답사가 실현되면 자료교환은 자연히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측 합의서 초안을 받아들일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백두산화산연구에 대한 자료를 먼저 넘겨주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면서 장시간이나 뻘뻘히 나가는데 아무런 속도도 없는 저들의 그 무슨 《접근방식》이니, 《원칙》이니, 《단계별 계획》이니 하는 것을 장황하게 리얼한 《향해각서》라는것을 들고나와 고의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그러면서 백두산화산연구와 관련한 우리측 자료를 먼저 넘

## 해외동포대표단들 도착

【평양 4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태양절에 즈음하여 합성군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국회대표단, 진순영교문을 단장으로 하는

비행장에서 맞이해 해외동포 사업국 국장, 관계부서 임원들이 맞이하였다.

한편 이날 김용태를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도착하였다.

## 월남공안성대표단 도착

【평양 4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월남공안성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메 홍 이영 공안성 단장으로 하는 월남공안성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최홍진 인민보안부 부부장관 원 덩 즈영 주조 월남사회주의공화국 립시대대사가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내성인보안원이 단장에 꽃다발을 주었다.

이날 인민보안부에서

비행장에서 맞이해 해외동포 사업국 국장, 관계부서 임원들이 맞이하였다.

한편 이날 김용태를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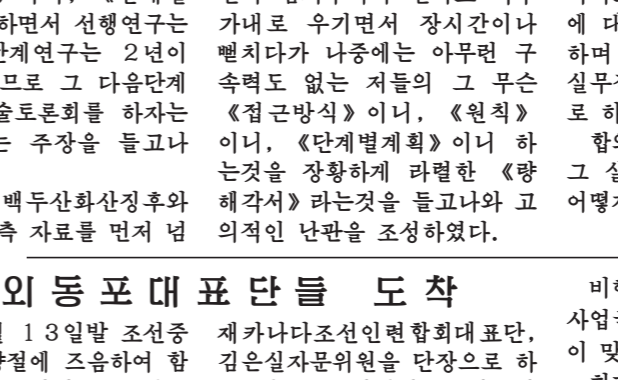
제일조선인예술단의 군무 《세계를 향하여》



도이칠란드 《크로이첸 콘서트》 협회 독주가일행의 첼로와 피아노 2중주



중국교예단의 《2인 발레 조형》



로씨야 모스크바교향악단 발레무용극

# 향들한 조선의 예술

제 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식에 참가한 여러 나라 예술인들은 우리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프랑스 알베리크 마냐르명칭 실내악단 단장 라베르네 크리스미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식이 참으로 황홀하였다.

연도환영과 조선의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민중악기가 배합된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은 특색이 있다.

특히 관현악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가 매우 감명적이다. 들

아기런 사람들에게 이번에 받은 총동맹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중국 길림성교향악단 지휘자 쟡가봉은 개막공연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의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수준은 최고의 최고이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교향악단이라고 말하고싶다.

위대한 김정일총비서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은 예술분야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다음 4월의 봄 친선예술축

전에도 꼭 참가하였다.

중국예술단 단장 쟡가봉은 국립교향악단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다. 관현악은 흥분된 심정을 다 음과 같이 괴력하였다.

축전개막공연을 보고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핀란드에도 교향악단이 있지만 조선의 국립교향악단처럼 수준이 높지 못하다.

개막공연을 보고 길림성주석의 찬성 100곡을 가졌으며 진행될 축전의 품위를 가능하게 되었다.

로씨야와 프랑스의 《오베레

연은 조선에서만 진행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핀란드음악단 단장 뵈르도 클리케는 흥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괴력하였다.

축전개막공연을 보고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핀란드에도 교향악단이 있지만 조선의 국립교향악단처럼 수준이 높지 못하다.

개막공연을 보고 길림성주석의 찬성 100곡을 가졌으며 진행될 축전의 품위를 가능하게 되었다.

로씨야와 프랑스의 《오베레